

# Living the Lotus 2

2024

*Buddhism in Everyday Life*

VOL. 221



*Rissho Kosei-kai of Bangkok*

## Living the Lotus Vol.221 (February 2024)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문메디아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mailto: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모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 「부끄러워 하는 것」은 잘 산다는 것

Rev. Nichiko Niwano  
President of Rissho Kosei-kai

### 인간의 기본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이 계절의 절분(節分:입춘 전날)에는 집안에서 ‘귀신은 밖으로, 복은 안으로’ 라고 외치면서 볍은 콩을 뿌리는 ‘마메마키(豆まき)’는 일본의 전통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 환절기에 무병식재(無病息災:병 없이 건강하고, 부처 혹은 보살의 힘으로 온갖 고난과 재해를 소멸시키는 것)를 기원하는 행사입니다만, 우리들은 역귀(疫鬼:역병을 일으킨다는 귀신)와 함께 탐(貪)·진(瞋)·치(癡)와 같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털어내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심(心))의 귀신(귀(鬼))’ 이라고 해도 심방변 심(忪)에 귀신 귀(鬼), 즉 괴(愧)자가 되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쪽은 오히려 없애서는 안 되는 마음,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언행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참괴(慚愧)’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괴(愧)’ 는 물론 ‘참(慚)’ 이라는 글자도 ‘부끄러워하는 것’ 을 의미하며, 정토진종(淨土真宗)의 신란(親鸞)스님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써 보다 깊이 이 말의 의미를 설하셨습니다.

‘참’ 이란 스스로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 ‘괴’ 란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여 깊이 부끄러워하는 것. 또 ‘참’ 이란 남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이며, ‘괴’ 란 하늘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신란스님은 ‘무참괴란 사람이라 일컫지 않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결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경의(敬意)와 절도(節度)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인간관계도 사회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은 곧 인간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끄러워함으로써 구제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신란스님은 ‘스스로의 죄를 부끄러워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여러분은 ‘죄’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움을 알라’는 말을 남을 비난할 때, 비난하는 상대방을 향해 사용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알라’고 마음 속으로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면, 때로는 ‘지금 나는 자만해 있는 건 아닐까?’ 하며 겸손함을 되찾기도 하고, ‘욕망 그대로를 내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반성하기도 하며, 혹은 ‘가족들에게 얼굴도 들지 못할 일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멈추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 의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죄로부터 구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기르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구제받는다’

대학자로 알려진 야스오카 마사히로(安岡正篤)선생의 말입니다만,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본다면,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면 ‘참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또한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불성과 같아서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아는 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을 마음에 둔다—그 마음가짐을 설하는 것처럼 ‘항상 좋은 벗과 만나 마음을 부끄럽게 하라’고 말한 사람은 정토종의 호넨(法然)스님입니다. 석존께서는 좋은 벗은 불도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족을 비롯한 가까이에 있는 승가는 언제든지 자신을 지켜봐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럽게 여겨야 할 행동은 훈계해 줄 것이며, 우리들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승가라고 하는 좋은 벗에 의해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부끄러움을 알게 한다’

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 받을 일구고 더 나아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은 승가 또한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회와 세계는 욕망과 증오로 가득 차 있어 인간다운 ‘부끄러움’을 잊고 있는 듯한 위태로운 정세에 있습니다.

‘부끄러울 치(恥)’라는 글자의 기원은 ‘두려워할 겁(懼)’입니다만, 저는 사람이 신불(神佛)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알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Interview



ブラジル教会長  
佐々木マリア浩身

**브라질 교회의 교회장으로 취임을 한 지금, 마음이 어떻  
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을 연 듯한 기대감이 그 이상으로 있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개조님께서 1958년에 브라질의 일본인 이민 50년제 때 방문하시고 그 다음해에 하와이와 로스앤젤레스에 지부 (당시)가 발족했던 사실로 미루어볼 때, 말하자면 브라질은 본 회의 해외포교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서 느끼는 바가 있으세요?**

저희 집에서는 할머니가 입정교성회에 입회를 하셨으며 저는 신앙 3대째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1958년 교성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브라질로 건너갔습니다만, 그 해에 개조님께서 일본인 이민 50년제 참석을 위해 상파울루로 오셨는데, 일부로 아버지가 일하고 있던 회사 기숙사를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할을 배명받으면서 ‘저는 입정교성회 브라질 교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 브라질에서 태어나 자라난 것이 아닐까’하는 것을 느끼며, 생명을 이어주신 조부모와 부모님, 그리고 개조님 회장선생님 가르침과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브라질



ブラジル教会発足50周年記念式典の際に道場にて

1971년 브라질에서 태어난 신앙3대째. 상파울루 매켄지 대학 졸업. 1998년 입정교성회 학림 본과를 졸업 후, 2년간 동경에 있는 입정교성회 오오타교회의 포교원으로 임명. 그 후, 입정교성회 브라질 교회 포교원, 2012년부터 브라질 교회 교무부장 역할을 하였다. 2023년12월 입정교성회 브라질 교회의 교회장으로 취임.

땅에서 열심히 이 가르침을 전달해 나가고 싶다- 이러한 제 자신의 인연 사명을 음미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말과 행동에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뒷모습, 특히 효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컸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께서는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주 존경하며 소중히 여겼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자란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를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효도란 훌륭한 거구



작년의 식전에서 나카하라 전 교회장님의 □□□ 하는 □□□ □□□

나'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인가 제 자신, 부모님과 함께 매주 일요일에 입정교성회 브라질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마치 도량이 놀이터와 같았습니다.

**본인은 무엇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청년부 활동에 나오게 된 계기는 1993년 본부에서 열린 대학생 섬머 세미나에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어도 잘 못했기 때문에 참가할지 망설여졌었습니다. 그런데 “교성회에 대해서 정말로 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일본에서의 체험은 반드시 인생의 보물이 될 거야”라는 당시의 교회장님의 말씀에 섬머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장님 말씀대로, 세미나에서는 여러가지 체험을 하였습니다.

특히 개조님이 태어나신 지역 스가누마를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도량 도사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때는 일본어를 잘 못했었고, 경전을 독송한다는 것도 불안과 긴장감으로 가득이었는데, 독경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걱정하지 말거라. 팬찮아’ 하고 응원해주고 있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신기하고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학림의 학생들과의 교류 또한 아주 즐겁고 감사한 부분이었는데, 그 때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저는, 불교와 법화경을 더욱 깊이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년후인 1995년에 학림 본과에 입학하였습니다. 학림에서는 때로 동기인 친구와 다툼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는데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연(緣)을 통해서 나를 주시하는 수행’을 배



브라질 교회장 취임식에서의 読經供養

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학림에서의 3년은, 법화경을 연찬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과 마주하며 내 자신의 생각과 언동을 엄격하게 반성하는 ‘내성’과 ‘깨달음’의 시간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교무원이나 교무부장 등, 주로 교회 스텝으로서 근본불교와 법화경 공부회의 강사를 해왔습니다. 20년 전부터는 널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 출입구를 넓히기 위해 교회장님을 강사로 해서 ‘불교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는 통역을 맡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불교용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개조님의 법화를 활용해서 ‘먼저 남부터’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뀐다’라는, 초보자들도 알기 쉬운 내용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교회 간부님이 중심이 되어 약 30년 전부터 천식 치료 서비스를 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해 왔습니다. 상파울루는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천식으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입정교성회 회원이 아닌 5명의 자원봉사 지압사님들이 0세에서 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입정교성회 브라질 교회 도량을 개방하여 무료봉사로 천식에 걸린 아이들에게 경추 경혈마사지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4~13세 정도라면 완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7월에는 브라질과 일본 문화의 상호이해의



브라질 교회 회원 집에서 함께

촉진과 지역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농업수확제’가 입정교성회 브라질 교회 부지내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끼소바나 튀김, 브라질의 대표적인 요리인 슈라스코 등 간이음식점을 출점해서 교회 주변의 일반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법화경에서 의지로 삼고 있는 경문이 있나요?

보현보살권발품의 ‘사법성취’의 가르침인 ‘모든 부처님의 호념하시는 바가 있어야 하고’라는 구절입니다. 저희들이 ‘부처님께 살려지고 수호 받고 있다’는 절대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다면, 설사 인생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더라도 모든 현상과 일을 부처님의 자비와 배움의 기연으로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법성취’를, 저희들 법화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처님의 든든하고 힘찬 응원의 설법으로서 받아들이며 마음의 의지처로 삼고 있습니다.

## 개조님과 회장선생님께서 주신 가르침 중에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조님으로부터는 ‘먼저 남부터’, 회장 선생님으로부터는 ‘내 마음 받을 간다’라는 말을, 매일매일의 수행 속에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포부, 장래의 꿈에 대해 들려주세요.

앞으로는 학림에 많은 청년들을 보내서 차세대의 후계자가 될 인재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저희들 회원이 염원해 온 포르투갈어 ‘법화삼부경’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 ‘법화삼부경’을 브라질 포교의 새로운 출발의 기반으로 삼아,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입정교성회 브라질 교회 모두가 똘똘 뭉쳐 포교전도에 매진하여 브라질의 땅 전체에 법의 꽃을 피우고 싶다 - 그것이 지금의 저의 꿈입니다.



ブラジル教会長就任式のあとで会員と共に（最前列中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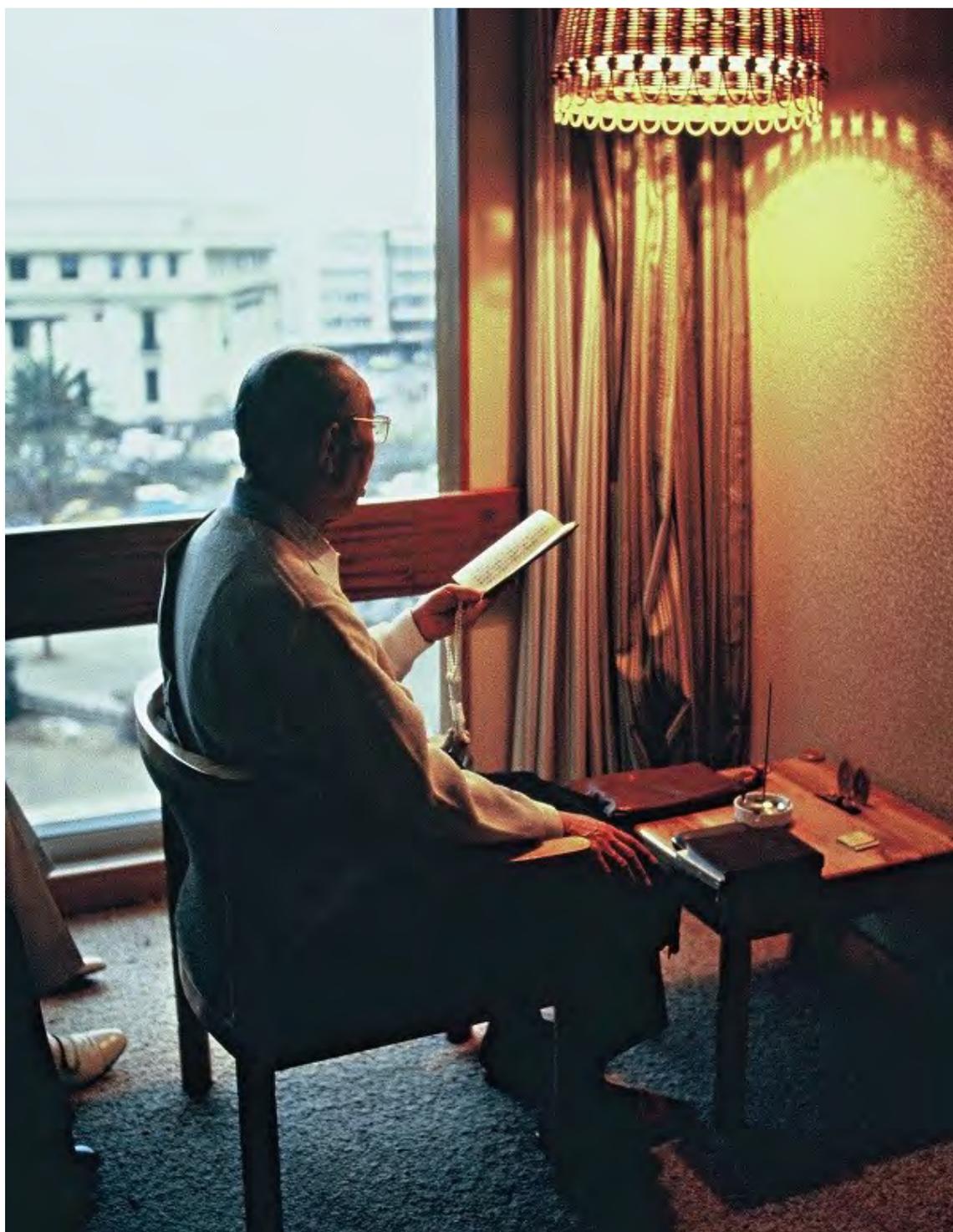




人に説いて自分が悟る

「人びとの幸福のために説け」

Rev. Nikkyo Niwano  
Founder of Rissho Kosei-kai



이것은 우리들 법화경을 신봉하는 인간의 아전인수(我田引水)설처럼 들릴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7년전(1975년), 일본의 불교학계의 최고봉의 한 사람이었던 미야모토 쇼손(宮本正尊)선생이 입정교성회 창립기념일 축사에서 “법화경이 ‘제경의 왕’ 인 이유는, 석가모니의 ‘전도선언’ 에 대해 열 번이나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경전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선언’ 이란, 석가모니께서 녹야원에서 5명의 비구에게 최초로 설법을 하신 후, 제자의 수가 60명에 달하였을 때에 재빨리 포교 전도의 선언을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일체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으며, 그대들도 일체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이 좋다. 하나의 길을 들어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서로 따로따로 포교 전도의 여행을 나섰으며, 석가모니께서도 혼자서 마가다국의 왕사성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법화경에는 도처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하라’ ‘후세를 위해서 이 경을 널리 설하라’ 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즉, 그러한 보살행에 의해서야 말로 세상을 구하고 인류의 구제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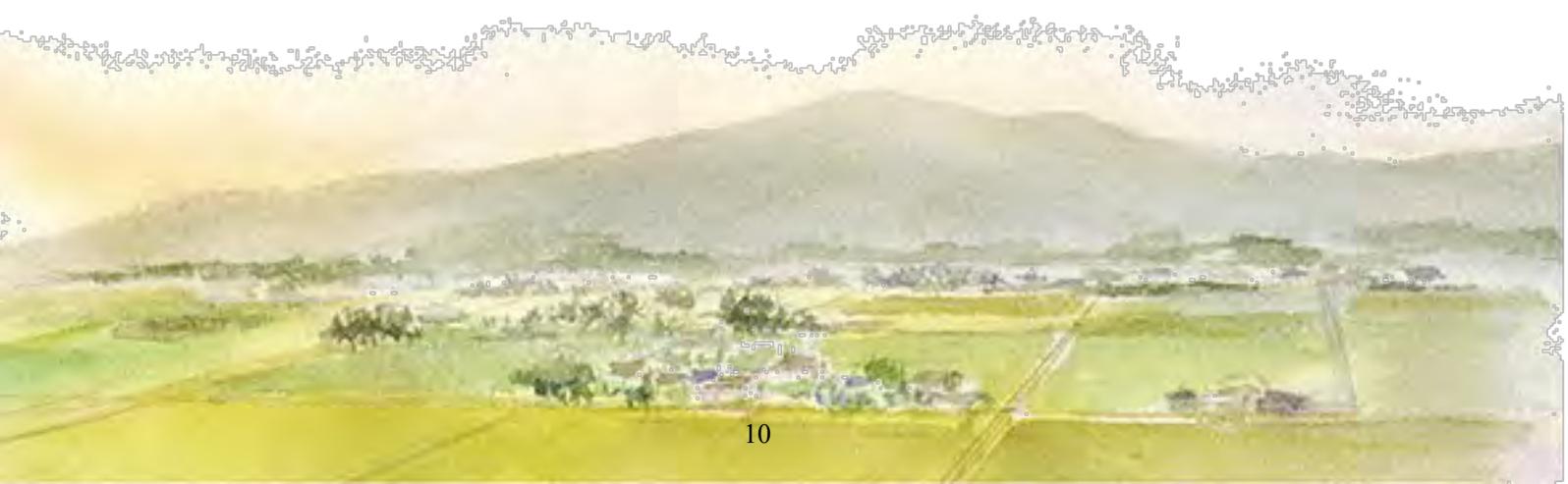
입정교성회는 이 석가모니의 ‘전도선언’ 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교단에서는 대부분 전문인이 ‘법’ 을 설하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정교성회에서는 ‘입회자 즉 포교자’ 를 모토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한다’ 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길을 가거라’ 라는 석가모니의 말씀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성회도 창립 당시에는 사람들을 ‘빈(貧)·병(病)·쟁(争)’ 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인류가 살아 남기 위한 대사업을 매일매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시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한다’ 는 것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하고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석가모니가 일생에 걸쳐 설하신 많은 가르침들을 후세의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체계로 정리한 것입니다만, 원래는, 석가모니께서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괴로움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르치고 인도하여 구제받은 구제적인 ‘구제’ 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루하루 만나고 접하게 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눈 앞에 나타난 모든 사람이 ‘구제’ 의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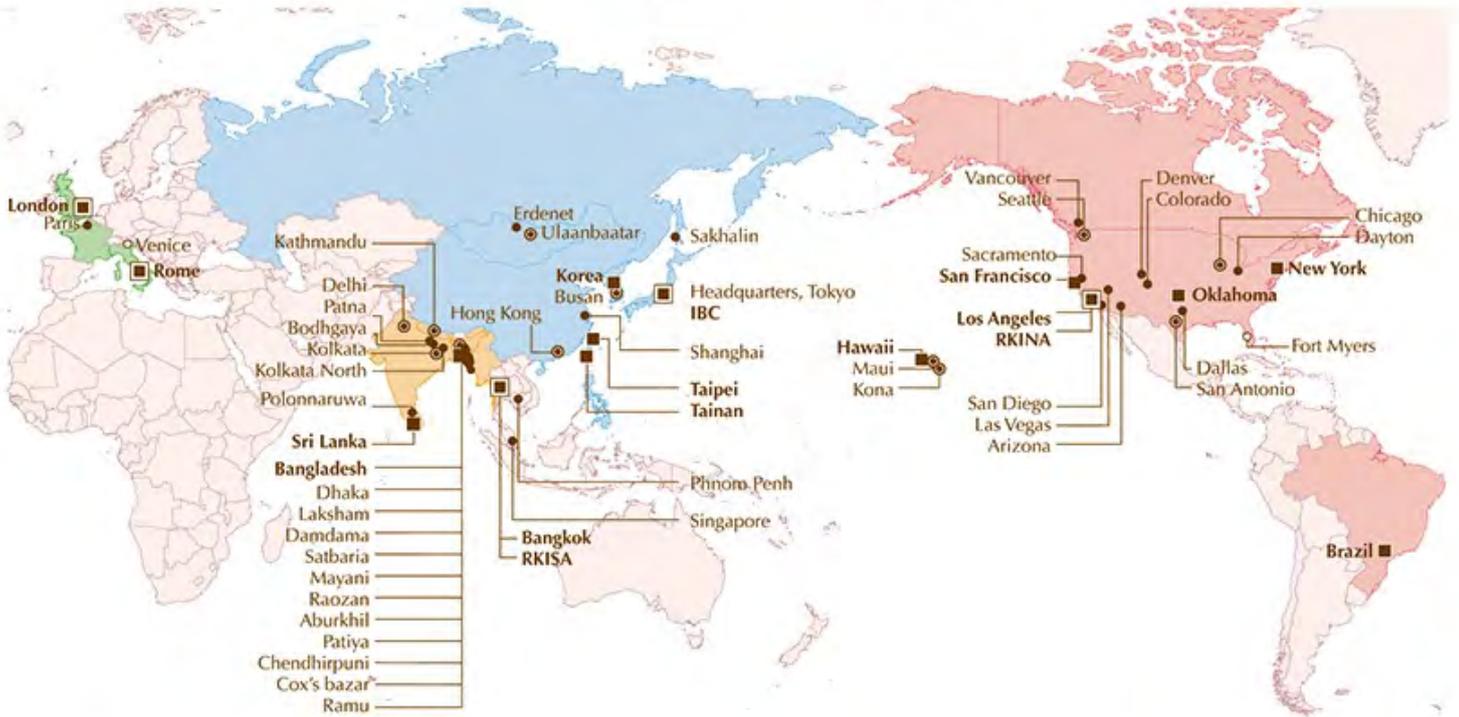


#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twitter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mailto: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